



2026. 9. 1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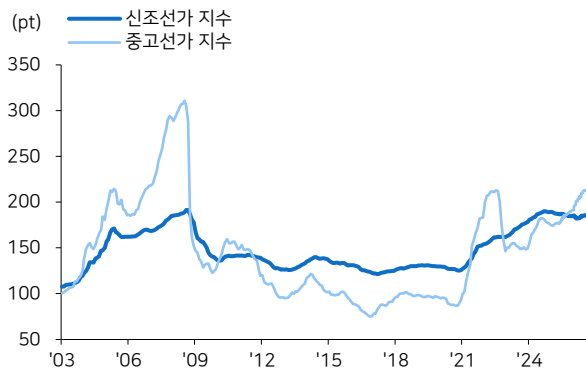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3p (+0.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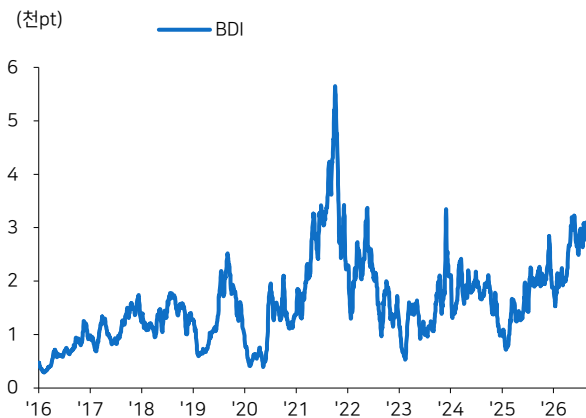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30.0달러 (+9.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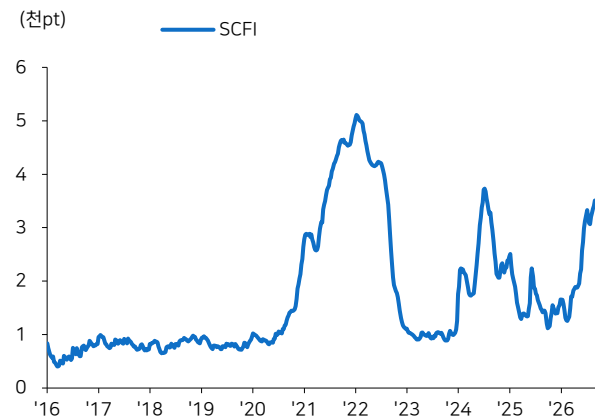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107.0p (+5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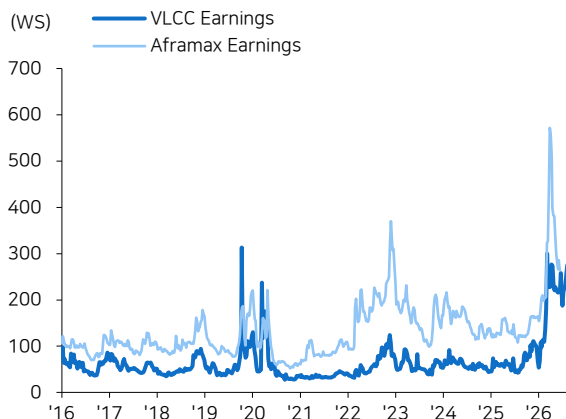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509.5 (+99.9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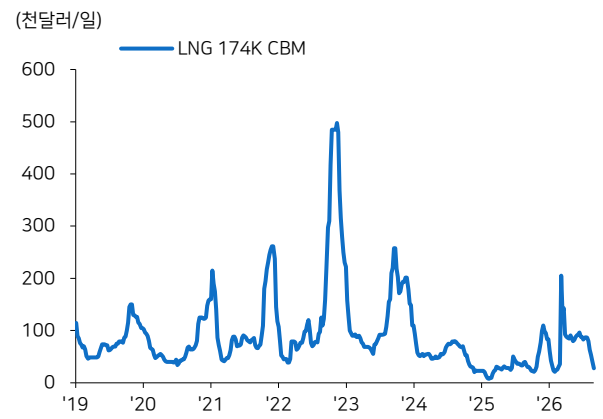
VLCC Spot Rate

401.7WS (-2.3p WoW)



LNG Spot 운임

28.0천달러 (-14.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화, 스페인 방산업체와 K9 자주포 계약...서유럽 시장 첫 진출 (연합뉴스)

<https://zrr.kr/D8ME7m>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스페인 방산업체 인드라시스템즈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서유럽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고 보도됨. 계약 규모와 물량은 비공개이나 한국거래소 공시 기준으로 6,675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K9은 미국 시제품 공급 계약에 이어 연속 수출 성과를 거뒀다고 전해짐. 이번 계약으로 K9 자주포 수출 국가는 11개국으로 확대됐으며, 검증된 성능과 운용·정비 효율성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 공략이 한층 강화될 전망으로 알려짐.

美 해군성 조선 실세 비공개 방한... K 조선 '미 함정 건조' 본궤도 오르나 (국민일보)

<https://zrr.kr/T4E9Ha>

미 해군 함정 건조 정책을 총괄하는 리처드 브레킨리지 해군성 수석보좌관이 방한해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SK오션플랜트의 생산 역량과 기술력을 점검했다고 보도됨. 이번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는 외국 업체에 한해 초도 군함 2척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 조선소의 미 군함 건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 행보로 전해짐. 국내 조선업체는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와 MRO 사업 확대 등으로 미 해군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며, 다만 실제 건조 계약까지는 미 의회 승인과 예산 확보, 미국 조선업체의 반발이 주요 변수로 알려짐.

아르헨티나 잠수함 수주전 '막판 요동'...나발그룹 대신 HD 현대중공업 급부상 (더구루)

<https://zrr.kr/H6J6cd>

아르헨티나가 약 22억유로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HDS-1500 잠수함과 MRO 패키지를 앞세워 프랑스 Naval Group의 유력 경쟁자로 부상했다고 보도됨. HD현대중공업은 페루 SIMA 조선소를 중남미 MRO 허브로 활용하는 유지보수·기술이전 패키지를 제안하며, 초기 정비 인프라 구축 부담을 줄이는 차별화 전략을 제시했다고 전해짐. 2017년 ARA 산후안함 침몰 이후 잠수함 전력의 공백 상태인 아르헨티나는 3~6척 규모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며, 납기·가격 경쟁력과 금융 지원 조건이 최종 사업자 선정의 핵심 변수로 알려짐.

한화에너지로 DC 진입로 찾는 한화엔진...라이선스 의존은 장벽 (인베스트조선)

<https://zrr.kr/dZELzm>

한화엔진이 4행정 중속엔진 기반의 데이터센터 발전엔진 시장 진출을 추진하며, 한화에너지의 북미 데이터센터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첫 공급 실적 확보를 검토한다고 보도됨. 한화그룹은 한화에너지가 프로젝트 개발을 주도하고 한화엔진이 발전엔진을 공급하는 계열사 중심 밸류체인을 구축해 북미 전력 인프라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다만 한화엔진은 원천기술이 아닌 해외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엔진을 생산하는 구조여서, 초기 레퍼런스 확보 이후 외부 고객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이 핵심 과제로 알려짐.

한화오션, 핵심 기자재 사업 담당할 'NES 사업부' 신설 (전자신문)

<https://zrr.kr/hhY7rY>

한화오션이 차세대 핵심 기자재 사업을 전담하는 NES(Next Energy System) 사업부를 신설하고, 제품 기획부터 설계·품질·영업까지 통합 수행하는 독립 사업부 체제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보도됨. NES 사업부는 친환경 연료 추진 시스템과 암모니아·수소 제어장치 등 차세대 에너지 기자재 사업을 담당하며, 한화파워시스템·한화엔진 등 그룹 계열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토털 솔루션 체계를 구축할 전망으로 전해짐. 이번 조직 신설은 친환경 선박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와 독자 기술로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알려짐.

HD 현대중공업, 사내복지시설서 근로자 1명 사망 (서울경제)

<https://zrr.kr/mayXbT>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직원이 사업장 내 보일러 기계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고 보도됨.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내 A형 사다리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만큼 낙상 사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해짐. 이번 사고는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로 HD현대중공업이 고강도 특별감독을 받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회사는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